

# 보도자료

## 일본 산업계, 정부에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요구

소니, 닛산, 도시바, 소프트뱅크 등 JCI 소속 92개 기업들 성명문 발표

현행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치 22~24%에서 40~50%로 발전 비중 상향 요구

오늘(18일) 일본 기후 이니셔티브(Japan Climate Initiative)에 참여 중인 92개 기업(붙임 참고)이 2030년 일본 에너지기본계획 상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40~50%로 상향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JCI는 일본 산업계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는 광범위한 이니셔티브며, 자동차, 해운, 보험/은행, 철강, 화학, 항공 등 일본의 메이저 기업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일본 기후 이니셔티브는 2019년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8%인데, 일본 정부가 설정한 2030년 목표는 22~24%에 불과하다며,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도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설정한 EU와 미국의 정책 방향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독일은 2019년 기준 42%에서 2030년까지 65%로, 프랑스는 20%에서 40%로, 캘리포니아주는 53%에서 60%로, 뉴욕주는 29%에서 70%로 늘린다는 목표를 정했다.

한국은 물론, 일본, EU,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등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는 현재 120개에 달한다. 일본 기후 이니셔티브는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가 상향될 경우, 일본 기업들이 기후변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소니, 파나소닉, 닛산, 소프트뱅크, 니콘, 아사히 등 일본의 각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경제단체연합회의 대표 기업인 도시바도 동참했다. 일본 기후 이니셔티브는 "탈탄소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일본 기업들이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산업계의 이번 성명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올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정할 계획인 한국 정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폐기물, IGCC 등 화석연료 기반의 신에너지를 제외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5%에 불과하며,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존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도 상향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최근 발표된 한국형 RE100 도입 등 정부가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인 점은 긍정적이거나,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지적하며,

2021년 1월 18일 배포

“우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NDC 상에 기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하는 한편, 전력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에서 각각 재생에너지 판매와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후솔루션 커뮤니케이션 담당 김원상, [wonsang.kim@forourclimate.org](mailto:wonsang.kim@forourclimate.org), 010-2944-2943

보도자료는 홈페이지(<http://www.forourclimate.org>) 뉴스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붙임1] 성명에 참여한 일본 기업 명단 (일본 기후 이니셔티브 성명서)**

아사히 그룹 홀딩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쿠보타	다이이치산쿄 주식회사	일본전기주식회사
주식회사 아식스	주식회사 코세	다이이치생명 홀딩스 주식회사	일본우선 주식회사
아지노모토 주식회사	국제항업주식회사	다이토 건택 주식회사	주식회사 뉴럴
아스크루 주식회사	코니카 미놀타 주식회사	야마토 하우스 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노무라 종합 연구소
주식회사 어드밴티스트	코바야시 제약 주식회사	타카사고 향료 공업 주식회사	노무라 부동산 투자 고문 주식회사
아미타 홀딩스 주식회사	삿포로 홀딩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다카시마야	파나소닉 주식회사
앙리츠 주식회사	산토리 홀딩스 주식회사	중외제약 주식회사	포스터전기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스퀘어	산토리 식품 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주식회사 TBM	부국생명투자고문주식회사
이온 주식회사	산멧세 주식회사	테이진 주식회사	주식회사 후지쿠라
주식회사 웨이트박스	J. 프론트 리테일링 주식회사	테르모 주식회사	후지필름홀딩스 주식회사
ANA 홀딩스 주식회사	주식회사제넥스	도쿄제철주식회사	Bloomberg L . P .
에자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상선 미츠이	토쿄 건물 주식회사	후루카와 전기공업 주식회사
SCSK 주식회사	신금중앙금고	주식회사 토시바	마에다 건설 공업 주식회사
SB에너지주식회사	주식회사 SCREEN 홀딩스	토다 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마루이 그룹
에스펙 주식회사	스미토모 임업 주식회사	토다 공업 주식회사	미츠이 스미토모 트러스트·홀딩스 주식회사
MS&AD 인슈어런스 그룹 홀딩스 주식회사	세이코 엡손 주식회사	나부테스코 주식회사	미츠비시 토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오오바야시구미	세키스이 화학공업 주식회사	난카이 전기 철도 주식회사	메이지 홀딩스 주식회사
오키 전기 공업 주식회사	세키스이 하우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니콘	주식회사 메이덴사
카오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븐&아이 홀딩스	닛산 자동차 주식회사	유니참 주식회사
컬비 주식회사	소니 주식회사	닛세이 어셋 매니지먼트 주식회사	라이온 주식회사
카와사키 기선 주식회사	소프트뱅크 그룹 주식회사	일본판유리주식회사	주식회사 리코
쿄우발공업 주식회사	SOMPO 어셋 매니지먼트 주식회사	일본 생명보험 상호회사	리코리스 주식회사
기린 홀딩스 주식회사	SOMPO 홀딩스 주식회사	일본 담배 산업 주식회사	와타미 주식회사